

제 목	국 문	한국 표준의료 행위 분류개발	
	영 문	Development of Korean Classification of Standard procedures in medicinal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한중, 손명세, 박은철, 이선희, 김석일, 박효길, 권오주, 지제근, 박형욱, 송재석	
	영 문	Hanjoog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분 야	보건행정	발 표 자	김한중
발표 형식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6 년 12 월		
<p>1. 연구 목적</p> <p>한국의 의료보험 수가 구조의 합리성 제고의 목적으로 현재 의료보험 수가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행위별 수가 체를 유지하는 한 의료행위의 합리적 분류가 전제되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의료행위 분류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양급여 기준과 진료 수가 기준뿐이어서 완전히 과학성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가 체계를 정비하기에 앞서 대한의학협회 차원에서 한국표준의료행위 분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협이 의학회와 각 분과학회의 협력을 얻어 수가구조 합리화의 전단계라는 의미에서 앞서 의료행위를 분류하는 표준화의 의미로서 한국표준의료행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표준의료행위 분류 개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p> <p>첫째, 현재 한국에서 의료인 특히 의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분류학(Taxonomy)의 바탕 하에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분류체계 자체의 학문적 합목적성을 갖게 한다.</p> <p>둘째, 부가적으로 한국표준의료행위 분류를 사용하게 되면 이의 의학교육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셋째, 행위별 수가 체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소모가 각기다른 개개 서비스가 상황단위 이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할수 있는 상대가치로 개발 가능한 단위로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현재 비틀어져 있는 수가 구조의 개선에 활용 토록 한다.</p>			

2. 연구방법 및 과정

- 저자들은 1990년부터 의료 행위의 상대가치 개발을 통한 수가 구조개편을 연구 논문과 용역 연구등을 통해 제안하였다.
- 1994년 의협에 표준의료행위 개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995년 5월 대한의학 협회 주최로 의학회의 각 분과학회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각 학회들이 자신의 의료 행위를 분류 기술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각 학회들이 1차적으로 8월초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분류하여 제출한 내용을 분석하여 환류과정(feed back)을 거쳐서 분류체계와 항목등을 현재(1995. 10. 10)까지 제출하고 있다.
- 각 학회가 참고한 의료행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진료 수가 기준 집. 주항목포함
 - 미국의 CPT '95과 ICD9의 Procedure Tabular list
 - 일본의 사회보험 진료 수가 기준
 - 대만의 노공보험 진료수가기준
 - WHO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ocedures in Medicine
- 향후 연구 방법은 각 학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수기 분류학 프로그램인 PAUP를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분류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WHO등에 국제 표준의료행위 분류 제정을 건의 하려 한다.

3. 연구의의

- 세계를 보는 틀인 분류체계의 정립을 통해 의료를 재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타당한 분류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 의학교육의 기본자료를 창출할 수 있다.
- 의료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초로서의 행위 분류체계를 통해서 상대가치, 환산지수 등의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4. 연구결과

현재 분석 중이므로 학회에서 발표할 것입니다.